



등수국 / *Hydrangea petiolaris* Siebold & Zucc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수국속
과국명	범의귀과
과명	Saxifrag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범의귀과 낙엽 활엽 만경목으로 우리나라의 울릉도 및 남쪽 섬에서 자란다. 일본에도 분포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▶일본에도 분포한다.▶울릉도 및 남쪽 섬에 자생한다.</p> <p>형태 : 낙엽활엽 만경목</p> <p>크기 : 길이 20m정도</p> <p>꽃색 : 녹색</p> <p>개화기 : 6월,7월</p> <p>잎은 마주나기하며 넓은 달걀모양 또는 둥근 모양이고 끝이 짧고 뾰족하거나 점첨두며 원저 또는 심장저이다.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. 뒷면 맥 위에 털이 있고, 잎자루에는 털이 없다.</p> <p>꽃은 가지 끝에서 평평한 취산꽃차례를 이룬다. 가장자리에는 암술과 수술이 모두 없는 무성꽃이 있는데, 이 무성꽃에는 꽃잎같이 생긴 3~4개의 꽃받침조각이 있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. 안쪽에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고 있는 양성꽃은 꽃받침조각과 꽃잎이 각각 5개이다. 수술은 15~20개가 있고, 암술대는 2~3개가 있으며 씨방은 방이 2~3개 있다.</p> <p>열매는 삭과고 둥근 공 모양이지만 뒷부분이 평평하게 잘린 모양이며 절두이다. 9~10월에 갈색으로 익는다.</p> <p>줄기는 길이가 20m에 이르고 나무 줄기나 바위 겉에 붙어서 자란다. 가지에서는 공기뿌리가 내리고, 나무껍질은 갈색이며 세로로 얇게 벗겨진다. 어린 가지에는 잔털이 있거나 없다.</p> <p>바닷가나 산지에서 자란다. 제주도에서는 해발 1,700m이하의 숲 속이나 계곡의 바위 또는 나무줄기에 붙어 자란다. 양지를 좋아하나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. 추위에 약하지만 가끔 서울에서도 볼 수 있으며, 기름지고 습기가 적당한 계곡이나 호숫가 등에서 잘 자란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하여 번식시킨다. 가지에서 공기뿌리가 나와, 나무나 바위 위에 달라붙어 뿌리를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.</p>